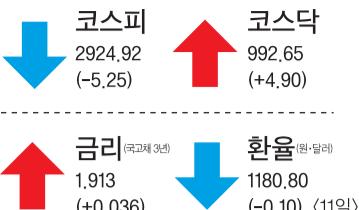




[르포]
활기 되찾은
르노삼성 부산공장
03



m-커버스토리

추가소비로 경기 활성화 효과 vs 직접 피해 본 업종 선별 지원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부 5차례 재난지원금 이어
與, 전 국민 추가 지원금 제안
野, 선거용 살포 등 반발 거세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전(全)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제안에 따른 것이다.

2022년 예산안이 논의되는 국회는 재난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얹히고 설키며 연일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경기도, 재난지원금 1.51배 소비 효과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정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특히 사회 취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1월 지급을 목표로 '전(全)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도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

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2171만가구)'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가구원수별 차등(40만~100만원)을 지급한 '보편지원' 방식으로 지급했다. 2~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했다. 1차의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다.

재난지원금이 과연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을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도 자체 사례를 근거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추가소비를 늘리는 효과 있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시 도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액 대비 1.85배의 소비 효과를 확인했다며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에 최대 18.5만원을 썼다고 설명한다.

또한 경기도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더하면 5조1190억원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7375억원으로 2019년도 동기 대비 7조7444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투입 예산 대비 1.51배의 소비 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을 때는 1.85배의 소비 효과가 났다는 게 경기도의 분석이다.

(4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짐 싸는 동학개미, 서학·코인개미로 변신?

국내 개인투자자 1년만에 순매도세 美 주식결제금 전년동기비 188% ↑ 암호화폐 日거래대금, 코스피 근접

국내 증시 베팅목 역할을 해오던 동학개미가 1년 만에 월간 기준 순매도세로 돌아섰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오르내리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다.

반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미국증시와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모습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9거래일간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ETF·ETN·ELW 제외) 시장에서 291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지난 해 11월(-2조7840억원)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도 지난 10월 26일

(3049.08) 단기 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오프닝(경기 재개)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헬스케어주와 금리 하락으로 인한 소재·금융주가 약세를 보였다"며 "대형 기업공개(IPO) 종목의 부정적 영향, 일부 정보기술(IT) 종목 및 메타버스 테마 관련 스몰캡을 제외한 다른 대형주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도 급감했다. 11월 개인투자자의 코스피(ETF·ETN·ELW 제외) 일평균 거래대금은 13조24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장 강한 순매수세를 보였던 지난 1월(34조5980억원)과 비교했을 때 61.7%

나 감소했다.

반면 미국 주식과 암호화폐에는 투자 자금이 쏠렸다.

지난 9일까지 미국 주식 결제금액(매수+매도)의 합은 122억2297만달러(14조4700억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2억4853만달러) 대비 187.6% 급증했다.

특히 암호화폐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을 거의 따라잡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비트코인은 7900만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체코에 따르면 11월 들어 업비트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2조4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인 13조2470억원과 1조원 차이에 불과하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버스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윤석열 39% 이재명 32%…尹, 오차 밖 앞서 /사진 뉴시스
- ▲ 광주 5.18부터 봉하마을까지…尹 '화해·통합' 행보

- ▲ '의원직 상실' 광상도 "아들 성과급 불편 끼쳐 송구"
- ▲ '고발사주' 제보 조성은,尹캠프 인사들 고소



길게 이어진 요소수 구매 행렬

국방부가 자체 보유중인 요소수 예비분이 공급된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항 인근 한 주유소에 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정부는 부산, 인천, 광양, 평택, 울산 등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군비축 요소수 220톤을 공급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

제네시스, 美 시장 공략 고삐 뉴욕 한복판에 '복합 문화공간'

1313평 규모 '제네시스 하우스' 개관 전담 큐레이터 통해 차량 상세 설명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공들인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미국 시장 공략에 고삐를 끊는다.

미국 시장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제네시스는 뉴욕 한복판에 '제네시스 하우스'를 열고 브랜드 인지도 확대에 집중한다. 이는 정의선 회장의 제네시스 브랜드를 향한 남다른 애정과 지원 덕분이다.

제네시스는 10일(현지시간) 첫 브랜드 복합 문화 공간인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을 공개했다. 제네시스 하우스는 차량 전시와 더불어 레스토랑, 라이브러리, 공연장, 테라스가 있는 등을 포함한 복합 브랜드 거점이다.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문화를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차량을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제네시스 하우스는 뉴욕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더 하이라인' 등이 있는 맨해튼의 문화 예술 중심지 '미트페킹 디스트릭트'에 위치해 있다. 국내에 '제네시스 스튜디오 하남', '제네시스 수지' 등을 디자인한 건축 사무소 '서아 키텍스'와 협업했다. 지하 1층을 포함한 3개층, 약 4340m²(약 1313평) 규모로 구성됐다.

제네시스 하우스에선 전시 차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담 큐레이터를 통해 들을 수 있다. 글로벌 브랜드 거점인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 1층 전시 공간

만큼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불어, 중국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9만1000개 이상의 금속 디스크로 구성한 '플립 도트' 벽면은 제네시스 패턴과 로고 등을 만들어내며 방문객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은 오는 19일 공식 개관한다.

업계에서는 정의선 회장이 올해 초 미국 뉴욕 맨해튼의 고급 콘도를 구입한 것도 제네시스 하우스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현대차 부회장이었던 정의선 회장이 초기 기획 단계부터 외부 인사 영입과 조직 개편까지 브랜드 출범 전 과정을 기획하고 주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성장세가 눈길을 끈다. 제네시스는 지난달 미국에서 5300대를 판매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전년 동월 대비 402.8% 급증했다. 올 6월 미국에 출시된 GV70가 1869대 판매되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양성운 기자 ysw@



- ▲ 정의용, 日하야시에 취임축하 서한… “관계발전 협력하자” /사진 뉴시스
- ▲ ‘2단계 재정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 지방재정 2조원 확충